

# 인터넷 포교사 양성 시급

## 붓다뉴스 설문조사 95.4% 필요성 느껴 정보매체 운영·수행지도 능력 갖춰야

인터넷을 통해 불교를 접하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 포교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포교사란 시공간을 초월한 가상세계인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네티즌들에게 불교를 홍보하거나, 동호회 등에서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포교에 전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가상공간에서 주로 활동하는 특성상 인터넷 포교사는 특별한 자질이 요구된

다. 정보매체와 기술을 운영할 능력과 불교관련 지식 및 수행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 그야말로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검증안된 불교정보를 올바르게 고쳐 네티즌들에게 전달해 주고 사이버 웹툰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네티즌들에게 신행상담 등을 통해 올바른 불자로서의 삶을 제시하고 불법을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각 종단이나 불교정보화협의회의 같은 공익단체들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된 인터넷 포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서 진행된 네티즌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87명 가운데 83명(95.4%)이 인터넷 포교사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포교사를 전문 양성기관에서 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49명으로 57%에 달했고, 22명(26%)이 종단이 시험후 자격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불교정보화협의회 사무총장 김승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정보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종교도 그 역할이 축소되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지금이라도 불교와 정보매체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인터넷 포교사를 양성,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면 불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nia.com

# 우리절 Digital·Cyber 불사

## 농인선원

1984년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조그마한 상가에서 처음 문을 연 농인선원. 지금은 서울 강남 포이동, 서초동, 국영사, 등용사 등 국내외 6개 법당을 운영하고 있고 포교, 신도교육, 기도처로 유명한 도심사찰로 성장했다. 농인선원은 현재 신도수만도 20만명이 넘고 한달 우편발송량만도 10만건에 달한다.

해 신용카드 기능을 겸비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농인선원 전자신도증을 발급, 개인신상은 물론 불교대학 출·결석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신도관리를 하고 있다. 농인선원은 지역 가정법회가 활성화되어 있다. 서울은 물론 해외까지 합하면 가정법회가 천여개가 넘는다. 그러나 신도들 가운데는 해외 이민을 가거나 지방에 거주해 사찰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농인선원

## 신도 관리 등 중무 전산화 구축 '홈피' 개설후 해외까지 법회 활성화

신도가 늘고 우편물 발송량이 늘면서 농인선원은 중무 전산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1995년 서초동 법당에서 지금의 포이동 법당으로 이전하면서 사찰내에 인터넷 전용선을 깔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도관리, DM발송, 불교대학 업무 등을 중무관리 프로그램인 '아란타'를 사용, 전산화했다. 처음에는 신도들의 인식부족으로 약간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신도인원을 대상으로한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해 지금은 신도들에게 빠른 중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인프라를 구축한 이후 신도들에게 전자신도카드를 발급했고, 지금은 삼성카드와 제휴

은 96년 홈페이지(www.gotobuddha.org)를 개설했다. 농인선원 홈페이지는 사찰 소개, 농인불교대학, 사이버 법당, 채팅방, 소풍방,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코너를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신도들에게 인기 있는 코너는 사이버 법당. 멀리 미국에 거주하는 신도들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주지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인선원은 앞으로 그동안 촬영해 놓은 농인불교대학 강의 동영상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농인선원 홈페이지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도들과 사찰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시공간 초월한 디지털 불사 앞장 도심사찰 감안한 화상법문 계획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하는 등 불교계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알려진 지광스님은 평소 인터넷이 우리사회에 새로운 매체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찰 중무의 전산화는 물론 홈페이지를 개설, 사이버 법당을 만드는 등 시공간을 초월한 디지털 불사에 앞장서 왔다. 특히 불교대학 강의를 모두 동영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놓은 것은 정보사회에 앞서나가기 위한 지광스님의 소신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광스님은 농인선원이 현대식 도심사찰이라는 점과 신도교육, 기도 중심 도량이라는 특성을 감안, 앞으로 위상을 이용해 국내외 6개 법당을 연결하는 화상 법문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신도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 불교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를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른길 사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게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풍광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eter.co.kr E-mail: bokbat@kornet.net

## 디지털·영상 콘텐츠 불교소재 눈길

지난 6-8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디지털콘텐츠 및 방송영상콘텐츠 국제전시회에서 카르마엔터테인먼트, 엔캐릭엔터테인먼트, 코리아루트의 부스는 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카르마엔터테인먼트사대표이사 하운환은 회사 창간 멤버들이 불교적 소양을 갖고 의도적으로 업이라는 산스크리트어인 카르마를 회사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많은 기업. 그동안 애니메이션 창작 및 제작, 캐릭터 머천다이징, 인터넷 방송 등을 사업분야로

하는 멀티미디어 종합 콘텐츠 생산에 주력했다.

- 카르마 엔터테인먼트-전통응용 캐릭터 개발
- 엔캐릭 엔터테인먼트-선 애니메이션 선별
- 코리아 루트-사찰소리 디지털화 기획

엔캐릭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이양우)는 '공부 몽키 쟈'라는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 '공부 몽키 쟈'는 부모를 잃고 분노에 빠질 뻔했던 소년이 무도를 통해서 진정한 용기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참선을 통해 인격을 수양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한국의 소리를 디지털화하는 코리아루트대표이사 김진순은 최근 사찰의



◇'공부 몽키 쟈'의 상영 모습.

## 다양한 콘텐츠로 내실에 최선 다할 터

### 유불동 7기 대표 시삽 신진학씨



"인터넷의 활성화로 PC통신 등호화에서의 신인회원 확보 및 접속상의 문제 등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대표시삽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달 27일 유니텔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이하 유불동 7기 대표시삽으로 선출된 신진학(42) 삼상물산 건설부분 차장씨는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유불

동에 접속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 내실있는 동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집안이 불교라 어린시절부터 자

등축제 등 오프라인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지난해에는 서울 경인지역장으로 활동했다. 신진학 대표시삽은 유불동을 이끌어온 선배들의 노하우를 이어받

## 성지순례 등 오프라인 행사 적극 참여

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신진학 대표시삽은 학창시절 불교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유불동에는 98년 처음 가입해 그동안 온라인 활동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되는 수계법회와 성지순례 연

아 불법을 믿고 배우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동호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 구성된 7기 운영진과 함께 신입회원 확보방안 강구, 다양한 신행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유불동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 계시판 영보기

- 경계하여 말하지 마라. 마음을 내어 생각을 일으킬 때 사람들에게 유익한 바가 없거든 이를 경계하여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bbx** 이병선 신, 유불동 교계소식계시판
- 사람들을 가장 음흉하게 하는것이 겨울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계절 또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이행**, 다음카페 인연인연계시판
- 내가 보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기대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실망이란 것도 하게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면이 발견될 때마다 그 사람을 다 알아가려는 욕심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꼭빛하늘**, 프리텔 대학생불교모임 룸버니

#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 「명상 최면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교육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기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퇴행 명상최면-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명상최면- 제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기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시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 ◆ 「특징」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속생령> 천도 및 제령

※ 나노-파동 명상최면요법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져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리가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게 따라 우주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通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가 될 수 있다.

동방명상전생연구소 ◆ 문의처: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www.dongbang21.co.kr

# 바른미소 건강한 마음 보람찬 인생

평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곳 **성리실버타운** (유료양로원)

시설안내

숙실수	96실(2인 기준)	동층수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숙실평형	9.5평		지상4층
부대시설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구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고
1실 1인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입주금 천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리원 이사장 석정화 ※ 공영주, 맹자님 모집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리원·성리실버타운 개령사무소: 경기도 가평군 상면 본부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 불교의식(범음·범패), 기악학인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법(속성과정): 요잡파라, 천수파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태평소(호적)
- 모집인원: 각 반 20명(선착순)
- 원서접수: 수시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 문의 ☎ 031)562-2751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 法人 **일승불교대학**